

[전체공지]

-특이 사항 없음-

[잭슨빌]

1. 이번 주 금요일(6월 19일)은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성시간을 시작으로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2. 교구전산시스템이 바뀜에 따라 6월 30일자로 회계 마감이 되고 7월 첫 주일에 정기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3. 6/15 월요일 정수기 정기점검이 있고, 6/19 금요일 해충방역이 있으니 성당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인즈빌]

-특이 사항 없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무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77	-	-	\$77
잭슨빌	\$190	\$460	\$220	\$870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904) 909-5080 성당 (904) 573 - 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공동체	
주일 미사	매주 일요일 10시30분	주일특전미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미사 후	-	-
성시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전	주일학교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저녁 7시	예비자 교리	-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전
사목회	홍무 이토마스 (904) 416-7437 /김스테파니아 (904) 613-9245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오늘의 묵상

사제가 되어 처음으로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신학교에서 전화로만 축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뵙고서 선물과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신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밥 차려 줄까?” 평소에도 부모님 댁에 가면 부모님께서 차려 주신 밥을 먹고는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내리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밥을 차려 드려도 부족할텐데 어버이날마저도 여전히 밥을 차려 주시려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면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 해를 외국에서 지낼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칠순 가까이 되신 어머니께서 주민 센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고 이메일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내신 이메일에는 어김없이 먹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좀 먹니?” “생일인데 미역국은 누가 끓여 주니?” “살이 너무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자식이 잘 먹고 지내는지 늘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느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십니다. 단순한 음식, 씹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걱정하시어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사랑의 양식을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1독서] 신명기 8,2-3.14-16ㄱ

하느님께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주셨다.

[화답송] 시편 147(146-147), 12-13.14-15.19-20ㄱㄴ(◎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2독서] 코린토 1서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6/13)	최건화 안젤라	성충현 베드로	남궁은미 루치아	-
	잭슨빌 (6/14)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렉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6/20)	고승희 엘리사벳	김백현 토마스	신혜정 소피아	-
	잭슨빌 (6/21)	이교순 카타리나	최명희 크리스티나	김부영 스테파니아	김정임 레지나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03	225	285	209
잭슨빌	170(1-2)	340	179	170(3-4)